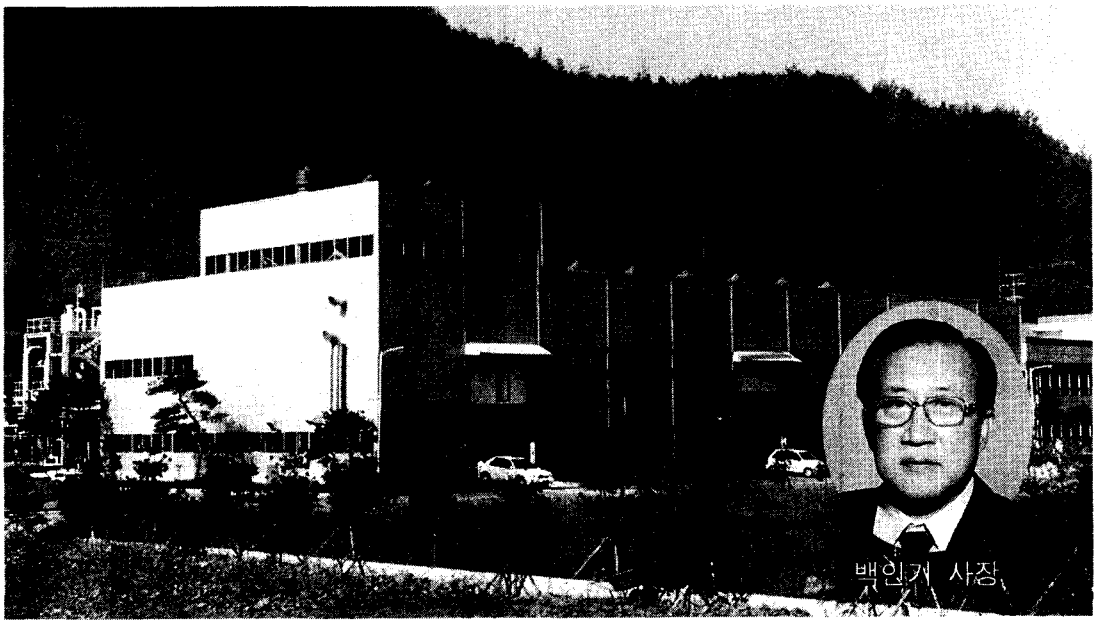
# 선양주조 (주)




1973년 8월 금관주조주식회사로 창업한 이래 대전 충청권의 대표적인 소주제조 회사로 자리잡고 있는 선양주조주식회사를 방문하였다. 올해로 창업 25년째를 맞고 있는 선양주조주식회사는 충남 대덕군 현 대전 광역시에 수량이 풍부하고 물맛이 좋은 서구 가수원동의 넓은 대지위에 향토기업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탄생하였다.

동사는 1973년 9월 주류제조면허를 취득한 이래 주류제조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듬해 5월 선양주조(주)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본격적인 주류제조업의 길을 걷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4반세기의 역사를 오직 소주만들기의 한 길만을 고집해오고 있는 선양주조(주)의 이러한 장인정신이 단일 생산품목만으로 애주가의 호평을 받아 충청지역에서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1985년 일본에 소주수출을 개시, 국내외에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또한 1992년 대전 세계박람회의 공식소주 공급업체로 지정되어 선양소주의 성가를 드높이게 되었다. 지난해말 백인기 사장의 취임으로 선양주조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는데 신임 백인기 사장은 주류 전문 경영인 답게 선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며, 주류 전문 경영인으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선양은 최우선 해결과제를 선양의 전국화, 세계화로 꼽고 있다.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시장점유율이 대전에서 80%, 충청도에서 55%에 이르는 등 대전시장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망 강화를 통하여 대전은 90%까지 높이고 전국 시장점유율도 현재의 4.6%에 6%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앞으로의 소주시장은 저도주 중심으로 개편될 전망이라는 분석아래 소비자들의 입맛

에 맞는 저도주를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한다.

백인기 사장의 취임과 더불어 선양이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제일의 환경을 갖춘 신공장 이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실례로 지난 신정기간에는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3박4일간 교육을 실시하였고 대전시 서구 오동의 2만5천평의 부지에 총사업비 1백 50억을 들여 오는 2000년 가동을 목표로 공장을 신축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 공장이 가동되면 월 60만 상자의 희석식 및 증류식 소주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그린투투」「그린월드」「그린골드」「깊은산 속옹달샘」….

선양주조에서 개발한 소주들은 이와 같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름다운 물이 용솟음친다는 의미의 지명인 가수원의 맑은 물로 만들어 진다.

선양주조는 알콜에 감미료, 조미료 등 식품첨가물을 가미한 희석식 소주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소주로 3개월 이상 숙성, 발효시켜 소비자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쓴맛을 제거하고, 감미롭고 부드러운 맛을 내게하는 전통소주를 주조하는 기법을 도입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한다.

선양주조가 제조한 모든 소주는 자연소주를 표방한다고 한다. 창사 22주년을 기념으로 내놓은 선양「그린투투」는 순하고 부드러운 맛을, 「그린월드」는 격조높음을, 「그린골드」는 깨끗함으로 주객들에게 어필하고 있는데 특히 선양의 22년 양조기술로 탄생한 이들 소주는 가수원의 맑은 물로 희석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상쾌한 소주라는 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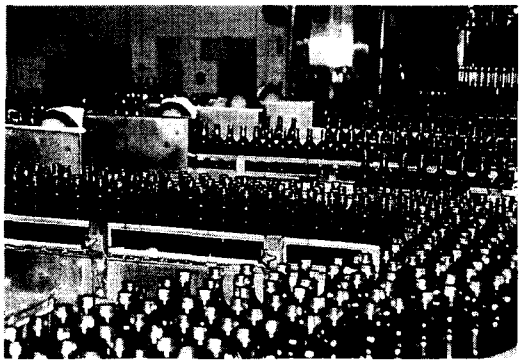
또한 선양주조는 조선시대를 풍미했던 절세미인에 명기이며 시인인 황진이의 이름을 따서 고급소주「황진이」와 고품격소주「깊은산 속 옹달샘」을 출시하고 있다.

선양주조 개발팀에 의하면 고급소주「황진이」는 다른 첨가물을 넣지 않고 천연물을 사용하여 만든 소주로 감미롭고 산뜻하여 뒤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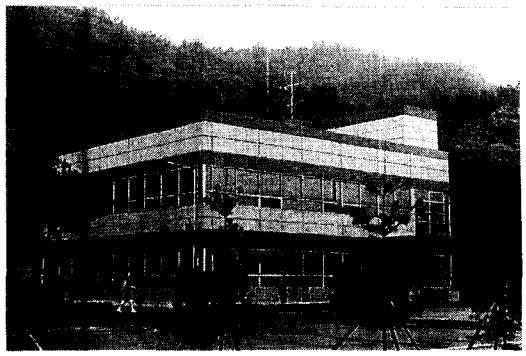
[제품사진]

| 제 품 명 | 용 량 | 알콜도수 |
|---|---|---|
| 선양그린월드 | 375㎖ | 25% |
| 선양그린골드 | 360㎖ | 25% |
| 선양그린투투 | 330㎖ | 22% |
| 피트닉 | 360㎖ | 25% |
| 청소주 | 640㎖ | 25% |
| 청소주 | 1.8㎖ | 25% |
| 선양30 | 1.8㎖ | 30% |
| 선양35 | 1.8㎖ | 35% |
| 황진이 | 350㎖ | 25% |
| 깊은산속옹달샘 | 300㎖ | 23% |
| 선양그린 | 360㎖ | 23% |
| 선양뉴그린 | 300㎖ | 23% |
| 선양그린스페셜 | 375㎖ | 23% |

[생산제품현황]



[생 산 설 비]



[연 구 동]

이 없는 깨끗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며, 천연 벌꿀로 맛을 낸 것과 자외선 차단용 DEG병을 사용함으로써 늘 변함없는 향을 유지하는 것이 「황진이」의 장점이라고 한다. 또한 질좋은 보리로 빚은 「깊은산속 옹달샘」의 차별성은 그 공정이 까다로워 대량생산을 할 수 없었던 전통의 증류주 제조기법을 현대화했기 때문에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올리고당, 벌꿀을 감미료로 사용하는 제품보다 더 발전된 제품이라고 한다.

이밖에 선양주조는 가벼워서 간편한 PET시리즈를 생산하고 있다. 이 제품들은 다양한 용도에 맞도록 알콜도수를 25%, 30%, 35%로 차별화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규격도 1.8리터와 640미리리터 등으로 구분하여 소비자가 기호와 용도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양그린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선양주조는 이제 지역기업에서 전국기업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백인기 사장은 현재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추진중인 전문화가 소주시장에서도 예외일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축적된 고도의 기술력과 차별화된 전략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개발만이 승패를 가름한다는 생각 아래 자도시장 점유율 및 전국시장 점유율을 끌어 올리는데 주력하여 향토기업으로서 정착하고 경영이익은 고객 및 거래선과 지역사회에 환원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면적 246평에 최신 설비를 갖춘 연구소에서 인간과 환경을 소중히 생각하며 항상 고객제일주의를 지향하고 다양한 제품으로 고객의 선택폭을 넓히고 국제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선양주조는 자연의 청정원료만을 사용하여 질좋은 소주를 만들고 있으며, 일찍부터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환경관련 사업을 펼친 결과 소주의 주된 원료인 깨끗한 물을 보호하려는 일관된 노력을 인정받아 1987년에는 환경보전 우수업체로 환경청장상을 받았으며, 1992년에는 자연보호 우수업체로 대통령상을 그리고 92년부터 94년까지는 3년 연속 환경관리 모범업체로 선정되기도 하는등 자연으로부터 인간에 유익한 환경을 보전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자연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선양주조의 일관된 지향은 「자연」이라고 한다.

가장 자연을 닮은, 자연에 가까운 제품의 생산을 꿈이자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녹색정신이 다가오는 21세기 국제화 시대에 그들의 소중한 미래를 열어줄 것으로 믿고 있다.

# 회사 현황 및 연혁

| 현 황 | | | | |
|---|---|---|---|---|
| 회 사 명 | | 선양주조주식회사 | | |
| 대 표 자 명 | | 백 인 기 | | |
| 주 소 | 본 사 |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487-4 | 전 화 | 042)542-1881 |
| | 공 장 | 제1공장 : 上同 제2공장 : 대전광역시 서구 오동 276 | | |
| 창 립 기 념 일 | | 1973년 8월 3일 | 자본금 | 40억 |
| 종 업 원 수 | | 195명 임원 : 6명, 사무직 : 120명, 생산직 : 69명 | | |
| 면 허 종 목 | | 소주 | | |
| 생 산 주 종 | | 희석식 소주 | | |
| 사 훈 | | 人和, 創意, 親切 | | |

| 연 혁 | |
|---|---|
| 년 월 일 | 내 용 |
| 1973, 8. 3 | 금관주조주식회사 설립 |
| 1973. 9. 21 | 주류제조면허 취득 |
| 1974. 5. 5 | 선양주조주식회사로 상호변경 |
| 1981. 1. 1 | 서울지점 개점 |
| 1985. | 일본수출 개시 |
| 1989. 6. | 지하 169미터 암반 지하수 개발 |
| 1990. | 미국수출 개시 |
| 1992. | 대전 세계 박람회 공식 소주공급업체 지정 |
| 1993. | 증류식 소주 제조면허 취득 |
| 1995. | 선양그린 22%(360㎖)생산 |
| 1996. | 벌꿀소주 황진이 생산 |
| 1997. | 깊은산속 옹달샘 생산 |

議事者, 身在事外, 宜悉利害之情. 任事者, 身居事中, 當忘利害之盧.

일을 논의하는 사람은 몸을 그 일 밖에 두어 마땅히 이해의 사정을 모두 살펴야 하고, 일을 실행하는 사람은 몸을 일 안에 두어 마땅히 이해의 생각을 잊어야 한다.

- 菜根譚 중에서 -